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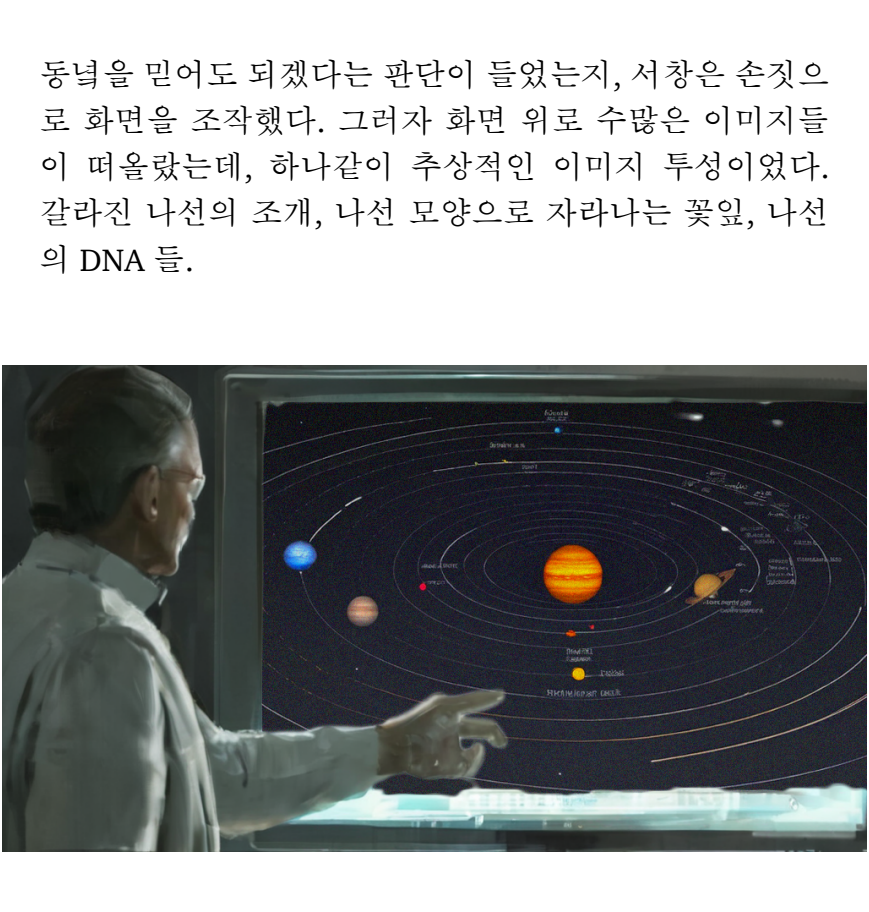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2

❖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화면을 통해 기억을 공유하던 늙은 서창이 말했다. 화면에는 조종실을 나가는 젊은 서창의 모습과 아무런 대꾸도 없이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젊은 지후의 모습이 반복해서 송출되고 있었다. 동녘은 한참동안 반복되는 화면을 지켜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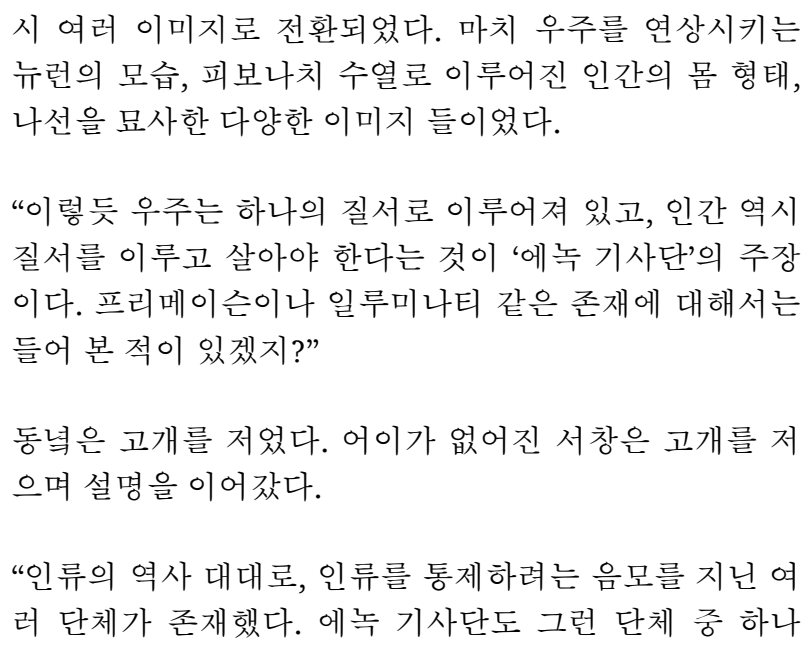
"선택적 기억이라, 편리하구만…."

서창이 비꼬듯 말했다.

"할아버지, 나는… 그러니까 지후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저 ZZBB51이라는 아머 유닛, 에녹 기사단, 질서… 모두 처음 보고 듣는 것 투성이라 머릿속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서창은 동녘이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매서운 눈빛으로 동녘의 눈동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동녘의 눈동자에 나타난 것은 무지와 혼란이었다.

동녘을 믿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서창은 손짓으로 화면을 조작했다. 그러자 화면 위로 수많은 이미지들이 떠올랐는데, 하나같이 추상적인 이미지 투성이었다. 갈라진 나선의 조개, 나선 모양으로 자라나는 꽃잎, 나선의 DNA 들.



동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숱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화면을 바라보는데, 서창이 물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전부 나선이라는 것 외에는 모르겠어요."
"그래, 나선. 스파이럴 볼텍스(Spiral Vortex). 우주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칙이지."

서창이 손짓하자 무수히 많은 나선의 이미지가 태양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태양을 위시한 태양계 전체가 마치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나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동영상이었다.

"태양계는 태양이 멈춰 있고, 그 주변으로 행성이 공전하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태양도 움직이고 있기에, 주변 행성들은 나선을 그리며 돌고 있지."

서창이 다시 손짓하자 태양계의 모습을 그린 영상이 다시 여러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마치 우주를 연상시키는 뉴런의 모습,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 형태, 나선을 묘사한 다양한 이미지 들이었다.

"이렇듯 우주는 하나의 질서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 역시 질서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에녹 기사단'의 주장이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있겠지?"

동녘은 고개를 저었다. 어이가 없어진 서창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인류의 역사 대대로, 인류를 통제하려는 음모를 지닌 여러 단체가 존재했다. 에녹 기사단도 그런 단체 중 하나로, '그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비밀 조직이지."
"'그들'이 누구죠?"
"인류의 씨앗을 심은 자들. 어쩌면 인류의 창조주일 수도 있고."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서창의 표정은 한없이 진지했다. 동녘은 서창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퍼스트 임팩트를 기억하지?"

퍼스트 임팩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적 사건. 동녘은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직접 경험한 기억은 없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단 건 알아요."
"퍼스트 임팩트는 사실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려 한 사건이다. 그들은 다시 내려올 거야."
"그들이라면, 외계인을 말하는 건가요?"

서창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할아버지,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그들은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의지가 생긴 것이 우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동녘은 방금 본 화면을 떠올렸다. 소울라이드 비히클 무리가 마치 군사정권 국가의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다이아몬드 대열을 갖추며 움직였던 풍경을.

"그래서 아까와 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개미처럼 서열에 맞춰 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정확하다. 실제로 개미는 인류보다 훨씬 번성한 생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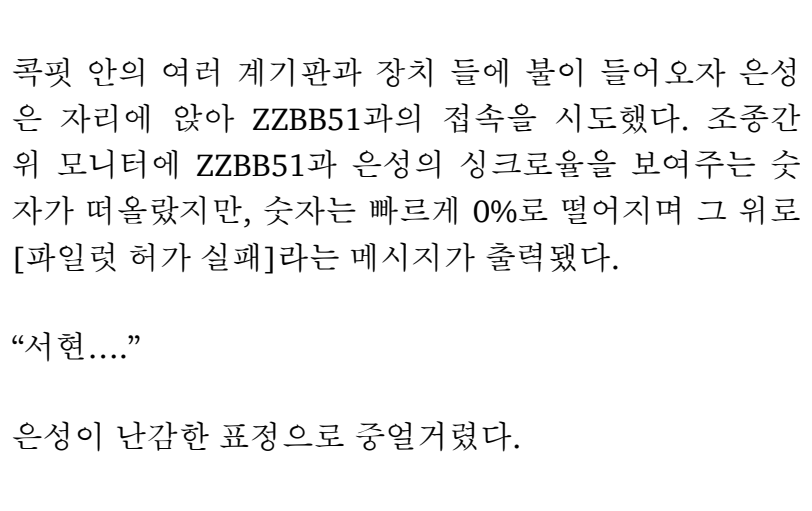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서창이 진지하게 대답하자 동녘은 머쓱해지고 말았다.

"농담으로 말한 건데, 진짜 목적이 그거란 말예요?"
"소울라이딩, 클론 모두 인류로부터 자유의지를 뺏기 위한 초석일 뿐이야. 지후는 거기에 부역해 기술을 개발하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완성한 채로 도망친 거고, 재호는 우리를 배신하고 에녹기사단에 부역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한재호 단장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서창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메시아 한재호의 죽음을 애도하는 군중이 오리엔티스 기지 앞을 가득 메운 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 조용히 울먹이는 사람, 조용히 국화 꽃이나 촛불을 내려놓는 사람 들이 있었다. 한재호의 사진 앞에 국화 꽃, 촛불, 애도 편지 들이 수북히 쌓였다.

한 청년이 애도하는 군중의 모습을 지켜보다 오리엔티스 기지 안으로 몸을 옮겼다. 청년의 정체는 은성이었다.

기지 격납고에 도착한 은성은 정비대에 놓인 ZZBB51 기체를 바라보다가, 기체 콕핏 안으로 들어갔다. 어린 시절에 들어가 있던 콕핏 안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콕핏의 내부였지만, 한 곳이 달랐다. 캣츠아이가 있어야 할 제어판이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제어판 앞에 선 은성은 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비어 있는 제어판 안에 집어넣었다. 무언가가 제어판에 올바르게 장착되는 소리가 났다. 은성이 품 속에서 꺼내든 물건이 바로 캣츠아이였던 것이다. 제어판에 캣츠아이가 장착되자, ZZBB51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콕핏 안의 여러 계기판과 장치 들에 불이 들어오자 은성은 자리에 앉아 ZZBB51과의 접속을 시도했다. 조종간 위 모니터에 ZZBB51과 은성의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숫자가 떠올랐지만, 숫자는 빠르게 0%로 떨어지며 그 위로 [파일럿 허가 실패]라는 메시지가 출력됐다.

"서현…."

은성이 난감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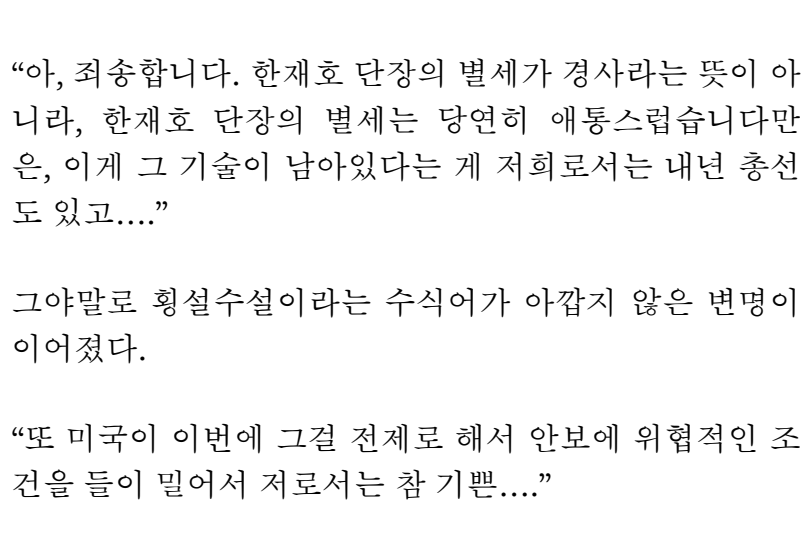
[은성… 아니 단장.]

무전기에서 치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성은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들이 몰려왔어, 빨리 와줘야 할 것 같아.]

은성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은성의 모습을 한 단장, 한재호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



회의실 안에 들어온 은성은 대통령과 당 대표, 서열 높은 정치인 들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장 상석인 사람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으며, 마치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람 같은 태도로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슨 급하게 전하실 말씀이라도?"
"신임 단장, 은성 씨. 한재호 단장의 기술은 오리엔티스가 이어 받은 상황이 맞지요?"
"네. 그렇긴 합니다."

대통령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경박스럽게 말했다."

"참 경사로군요!"

국회의장이 대통령 무릎에 손을 대며 자중하라는 신호를 주자, 대통령은 아차 하는 표정을 지으며 급하게 본인이 한 말을 정정하기 시작했다.

"아, 죄송합니다. 한재호 단장의 별세가 경사라는 뜻이 아니라, 한재호 단장의 별세는 당연히 애통스럽습니다만은, 이게 그 기술이 남아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내년 총선도 있고…."

그야말로 횡설수설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변명이 이어졌다.

"또 미국이 이번에 그걸 전제로 해서 안보에 위협적인 조건을 들이 밀어서 저로서는 참 기쁜…."

듣다 못한 은성이 대통령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대통령님의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클론의무화는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시자는 말씀이시겠죠?"
"네?"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잔뜩 흥분해 소리쳤다.

"네네네네! 역시 우리 단장님 센스가 있으셔서… 맞습니다! 제 권한으로 긴급 명령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 또 한재호 단장님 장례는 국장으로 치를 테니까, 내년 총선에도 좀 도움을 주시고, 또 제 업적으로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노벨 평화상을 또 탈지도 모르고…."

은성은 다정한 표정으로 다시 대통령의 횡설수설을 끊으며 말했다.

"네, 저희는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면서 바로 클론에 필요한 칩을 심는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시죠."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아하하…."

Continued to ep.23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